



# IFRS17 도입에 따른 사망률 추정 관련 이슈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2021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최근 보험회사들은 준비작업에 한창이며, 그 일환으로 사망률의 시가추정(current estimate) 방식도 검토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험데이터는 장기간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고연령 사망률 개선 추세를 장기간 반영할 경우 연금보험 부채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자사 데이터와 접목 시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연령 사망률의 급격한 개선추세 반영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2021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최근 보험회사들은 사망률의 시가추정(current estimate)을 포함하여 준비작업에 한창임

- IFRS17은 위험률 등 비시장변수의 추정에 있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현재 발생 수준과 함께 추세에 대한 정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사망률과 같이 국제적으로 뚜렷한 개선 추세가 발견되는 위험률의 경우 현행 추정 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사망률 개선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사망률 추정 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험데이터는 장기간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고연령 사망률 개선 추세를 장기간 반영할 경우 연금보험 부채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음

- 보험업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경험생명표의 경우에도 20여 년의 데이터만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가 고연령의 데이터까지 자체적으로 집적한 데이터는 이 보다 단기에 불과할 것임
- 연령대별 사망률 개선도<sup>1)</sup>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30~40대 저연령 층의 사망률 개선이 두드러진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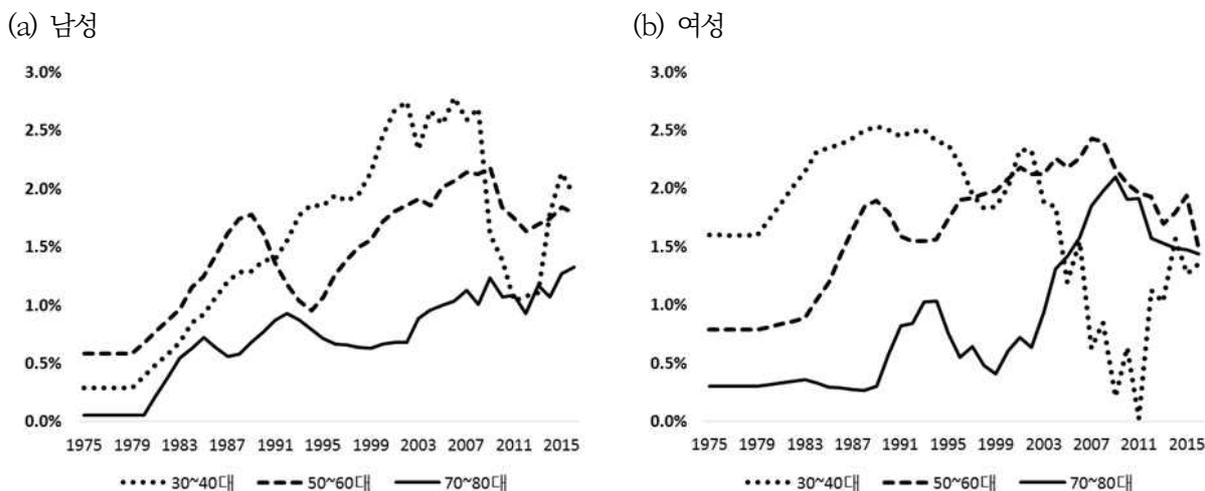
1) 연도별 사망률은 그 해의 기후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단기적으로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망률 개선도는 5년 평균

2000년 대 이후 50대 이상 고연령의 사망률 개선이 두드러짐

- 남성과 여성 모두 70~80대 고연령의 사망률 개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 정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연령의 사망률 개선 추세를 부채평가에 장기간 반영할 경우 연금보험 부채가 확대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그림 1〉 연령대별 평균 사망률 개선도 추이



자료: 통계청

■ 자사 데이터의 집계기간이 단기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사 데이터와 접목시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자사 데이터의 한계로 사망률 개선 추세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데이터가 보다 장기인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망률 개선 정도를 추정한 후 자사 데이터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각 보험회사의 경험 데이터는 언더라이팅 정책 등의 차이에 따라 사망률 개선 추세에 있어서도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와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이 경우 자사 경험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계 전체 또는 국민 사망률 데이터에서 얻어진 사망률 개선 추세를 보정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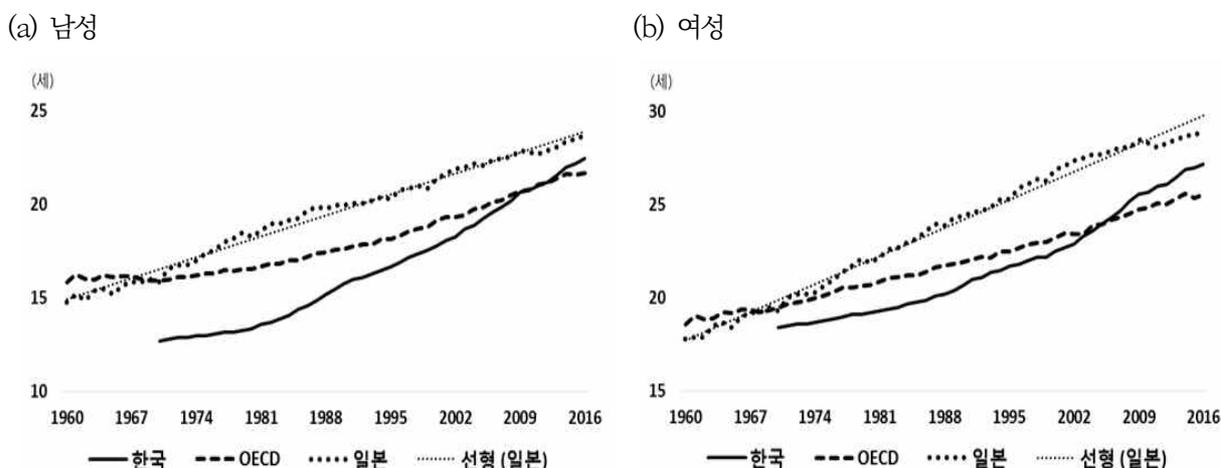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연령 사망률의 급격한 개선추세를 장기에 걸쳐 반영하는 것은 연금보험 부채의 변동성 확대

개선도로 살펴보았으며, 5세 군단별 개선도를 연령구간별로 단순 평균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정된 개선 추세의 반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에서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매우 장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개선 추세가 장기간 반영될 경우 연금부채 규모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IFRS17에서도 최선추정치가 가장 최근의 경험을 반영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경계하고 있음
- 한편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수준인 일본의 경우에도 2009년 이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사망률 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사망률 개선이 한계점에 도달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근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그림 2〉 우리나라와 일본, OECD 국가의 60세 기대여명 추이



자료: OECD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측정에 사용되는 위험률 산출 기법을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IFRS17은 회계정보 제공 시점에서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따라서 미래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률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히 추정되어야 할 것임
- 사망률의 경우 지속적인 개선 추세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며, 암 발생률과 같은 질병 발생률에서도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회사가 위험률 산출 기법을 정교화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손익을 예측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음 **kiri**